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 말라

1월 3일 미국이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이래 중동 일대가 전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이후, 주요 언론들은 사태가 진정되는 듯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며, 군사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도 이란 문제에 관여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 또한 이란과의 긴장을 더 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평범한 대중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은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란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란 대중에게도 해롭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선 아미르카미르공과대학 학생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중동에서 미국은 불안정과 혼란만 키워 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넓히는 꼼수를 써 파병을 하려고 한다.

중동에 긴장과 불안정을 키운 주범은 미국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을 제재·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위협과 공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민 보호’, ‘국익’ 운운하며 미국을 도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려 합니다. 파병은 미국의 전쟁 물의를 돕는 것이고 중동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릴 것입니다. 중동 대중의 피를 대가로 득을 취하려 하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파병된(될) 젊은이들과 한국인들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라크 무장 세력에게 납치·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을 문재인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일까요?

정부는 미국 주도 함대에 불참하는 ‘독자 파병’안도 거론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 군사력을 보내는 것은 결국 이란을 압박하고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은 제발 나가 달라”던 김선일 씨(사진 아래)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다. 그 결과 김선일 씨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1월 18일 이란 공격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행동에 참가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일어난 국제 반전 운동은 이라크 등지에서 저항을 고무하고 미국의 군대 동원 능력을 제약했습니다.

이미 미국 전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공격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행동에 함께합시다.

함께 참가합시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행위 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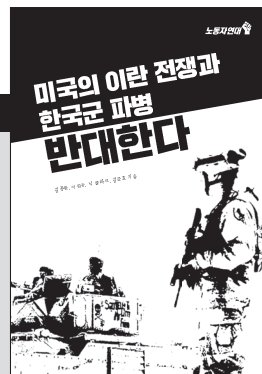
No War on Iran

파병 반대 평화행동

1월 18일(토) 오후 5시 |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 앞)

주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공동주최 모집 중)
문의: 010-2224-3975 / 010-7550-2131

추천 소책자



미국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김종환, 김준호, 닉 클라크, 이원웅 지음 | 36쪽 | 1,000원

● 목차

- 중동 전체를 전화에 휩싸이게 할 이란과의 전쟁 반대한다
-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Q&A
- 미국의 피비린내 나는 이란 개입 역사
- 미국의 개입은 중동의 민중 운동을 좌절시킨다

● 구입: bit.ly/파병반대소책자

●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